

기업과 함께하는 푸르미 시민실천단 사업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목적 및 배경

시흥스마트허브하면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시화공단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시흥스마트허브는 시화공단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공단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같은 취지로 반월공단도 지금은 안산스마트허브라 부른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은 1970, 80년대 서울 도심주변의 대다수 공해유발 업종을 이주시키기 위해 지금의 안산과 시흥의 갯벌과 바다를 메워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었다. 서울주변의 공해유발업체를 이주하고 애초 계획에 없던 20만명 이상의 주거지까지 조성하면서 주민과 기업, 공공기관과 주민, 기업과 기업의 환경갈등은 예고되어 있었다.

90년대에 들어 시흥스마트허브(구 시화공단)와 인근에 주거지(아파트)가 조성되고 기업과 주민이 높이 10m, 길이 3.4km의 차단녹지(완충녹지)를 사이에 두고 입주하면서 갈등은 표면화 되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 소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7번길 6-1,
장현빌딩 2층

전 화 031-317-0169

팩 스 031-317-0156

이메일 shag21@hanmail.net



었다.

환경오염업체의 악취배출과 지금은 발암물질로 분류된 미세먼지 등으로 주민들은 연일 대책을 호소하며, 시청과 도청 그리고 시흥스마트허브를 조성한 수자원공사 등에 몰려가 연일 데모와 항의를 했다. 그 외중에 시흥스마트허브 조성과 배후농지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시화호는 안산스마트허브와 시흥스마트허브에서 배출한 오염물질로 인해 썩어갔고, 환경갈등은 최고점에 다다랐다.

주민들은 대책을 호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환경감시단을 조직하여 기업들의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활동까지 진행했다.

이 환경감시단은 나중에 경기도와 시흥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시흥시에서 공식적인 환경감시단으로 운영하는 “시흥시 민간환경 감시단”이 되었다.

주민과 공공기관(환경부, 경기도청, 시흥시청, 수자원공사 등) 그리고 전문기관 등의 노력 및 환경의식과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



역사회참여를 높인 기업들의 노력으로 시흥스마트허브의 환경이 개선되고, 갈등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쓴 기업과 환경오염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깊은 주민들은 여전히 10m높이의 차단녹지(완충녹지)만큼 서로 먼 관계이다.

가끔 정부의 높으신 분들이나 공공기관이 함께 기업과 주민들의 화합이벤트, 환경갈등해소 퍼포먼스를 했지만 그야말로 1회성 이벤트였다.

이에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기업과 주민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서로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개선 등을 위해 실천하는 조직을 만들기로 하고, 행정기관과 환경전문기관까지 포함하는 “시흥스마트허브 푸르미 시민실천단”을 구성하였다.

사업내용

일단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흥지속협)는 시흥스마트허브 푸르미 시민실천단(이하 푸르미실천단)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푸르미실천단에 참여할 기업을 찾았다. 그러나 시흥스마트허브 소재 기업들은 주민, 행정기관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행정기관과는 환경에 대한 지도와 단속의 대상이고, 주민과는 환경피해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이니, 함께 지속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에 부담이 있었다. 대신 기업은 기업들끼리 경기도와 함께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의 날”을 정해 공단지역을 청소하는 활동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시흥시와 협의를 통해, 악취를 많이 배출하여 요주의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흥시 담당부서와 회의 및 설명회를 가졌고, 25개 기업 정도를 참여시켰다. 이중에 많은 기

업이 매월 1회 경기도와 진행하는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의 날”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푸르미실천단”활동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했다.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기업들이 환경활동에 참여하거나 동원하는 횟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었다.

여기에 인근주민 20여명과 시흥시의 환경정책과 그리고 환경 관련 전문기관인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가 참여해서 2013년 시흥스마트허브 푸르미실천단이 50여명으로 발족했다. 기업 측에서는 환경관련부서 담당자나 직원을 푸르미실천단의 단원으로 참여시켰다.

푸르미실천단 구성 후, 제일먼저 옥구천이라는 하천주변을 청소하고 꽃과 나무를 심는 ‘옥구천 꽃길 가꾸기’활동을 진행했다. 옥구천은 20만 명이 주거하는 새로운 도시를 공단 옆에 만들면서 조성한 인공하천으로 빗물이 빠질 수 있게 하며 하천의 기능도 갖고, 많은 주민들이 친수공간으로도 이용하는 하천이다. 이곳의 일부구간을 맡아 아름다운 꽃길조성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였다.

2016년부터는 기업과 주민을 나누는 분리장벽 같던 차단녹지(완충녹지)를 숲가꾸기 활동을 통해, 기업과 주민의 화합의 숲, 만남의 숲으로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하나의 사업은 푸르미실천단 단합과 소통을 위한 체육대회이다. 푸르미실천단은 기업과 주민 그리고 행정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환경 갈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어서 단합과 소통을 위한 체육대회는 1년 중 중요한 행사이다. 예전에는 기업과 주민의 갈등이 극단적이어서 환경오염(주로 악취배출) 일으키면 무조건 공장을 폐쇄하거나 시흥스마트허브에서 나가라하는 게 주민들의 일반적인 대응이었다. 하지만 푸르미실천단 참여기업들의 실수나 기업 활동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

기업들과 주민들 간의 일상적인 소통이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푸르미실천단 기업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사업은 중요도에 비해 자주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푸르미실천단에 참여하는 구성원만이 아니라 참가기업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1년 활동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시장님, 시도의원님, 기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지역사회의 푸르미실천단 활동을 알리고, 더 적극적인 활동을 계획하는 자리로 활용하고 있다.

사업평가와 과제

• 주민과 기업 간 소통의 장이 된 푸르미실천단

지역사회의 공동 구성원이면서 환경갈등의 가해자와 피해자 처럼 20여년을 대립과 갈등으로 지내온 주민과 기업의 소통과 협력의 장이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줄이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 기업 측의 적극적인 참여

초기에는 환경단속을 실시하던 행정에서 참가를 권유하니 거절을 못했으나, 현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4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방식도 초기에는 형식적이었으나 푸르미실천단 환경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 지원하는 기업도 생기고 있다.

• 주민들의 참여 확대

기존에 시흥지속협 활동을 하던 스마트허브 주민위주로 참여하며 시작했지만, 현재는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을 마친 주민들도 환경보호 봉사활동을 위해서 참여하는 등 주민참여도 늘고 있다.

• 시흥지속협의 민간네트워크 확대

시흥지속협은 시민환경단체, 지역주민, 행정기관 등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했으나 기업참여는 미미했다. 현재 푸르미실천단 사업을 통해 40여개의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 기업분야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업-기업 간의 정보교류의 장

기업 내 환경관련 업무 담당자가 푸르미실천단에 참여하면서 기업 간에 환경기술, 인적정보 등 정보를 교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제도 도출되고 있다. 먼저 푸르미실천단의 활동이 정기적인 활동을 늘리거나 변동이 어려운 기업 측 일정에 맞추어 진행된다보니(매월 둘째 주 금요일) 활동의 내용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푸르미실천단 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동원하는 방식에서 찾아가는 방식, 사업의 내용을 환경정화활동 위주에서 기업들의 환경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기업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활동을 지원하는 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시흥지속협은 향후 현재 70여명인 구성원을 더 늘릴 계획이다. 많은 구성원들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기 때문이다. 기업과 주민의 협력이라는 메시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 거버넌스 중요성의 메시지 등을 제대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흥지역사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규모와 활동의 규모도 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푸르미실천단 활동이 산업단지와 공존하는 도시의 모델이 되기 바란다.

